

제 1 회 분자전자 심포지움을 마치고

본 학회의 첫번째 부문위원회로서, 지난 2월 25일에 창립총회를 갖은 분자전자학 부문위원회에서 약 반 년만에 제 1 회 “분자전자 심포지움”을 지난 9월 25일에 약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거행되었다.

분자전자학은 분자수준이나 분자크기에서 나타나지는 능동적 특성을 연구하고 이용하여 광학 및 전기, 전자적 소자에 활용하는데 관련된 종합적인 학문분야로 물리 및 화학은 물론, 고분자, 화공 나아가서는 전자, 통신 및 의학 등 여러 전문분야에 걸쳐 공동연구하여야 하는 최첨단 기술분야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고도의 발전을 이룩한 과학기술의 결정체로서 얻어진 미세화된 반도체 전자소자를 이용한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보처리핵심소자의 고집적화 추세 및 정보처리고속화를 달성하는데 분자전자학이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재 국가의 번영이 자국상품의 국제 경쟁력과 직결되고 과학기술의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시점에서 창립 총회 이후 약간 늦은감은 있지만 다음과 같이 반년 만에 심포지움을 무사히 끝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심포지움〉 내역

1. Characteristics of Superconductors(강 원, 이화여자대학교)
2. Monolayer Study for Biosensor Development(김재호, 파스퇴르유업)
3. Effect of Molecular Weight on Polyaniline(오웅주, 명지대학교)
4. Opto-Electric Properties of Doped Fullerenes(최한용, 성균관대학교)
5. Polysulfone-Resist(김성주, 금호석유화학)
6. Molecular Orientation in LB Film(신동명, 홍익대학교)
7. Electro-Optical Properties of Smectic A Liquid Crystal(이신두, 서강대학교)
8. Recent Development of 2nd Order Nonlinear Optical Polymers(최동훈, KIST)
9. Nonlinear Optical and Electro-Optical Polymers for Microelectronics(우종원, 이화여자대학교)



심포지움 개최에는 분자전자학 부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엽박사의 인사말에서 심포지움 개최 경위와 금후의 연구 방향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분자전자학 특성상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하여야 하는 multidisciplinary한 학문영역으로서 관심있는 연구자간의 협동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관련인사 및 기관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 참여를 부탁하였다.

금번 심포지움에서는 상기 제목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화공, 물리, 화학 및 고분자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강연을 하였는데 물리분야에서의 접근은 이론적인 해석으로, device 등은 화공 및 물리분야에서 각각 발표되어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또한 고분자 분야에서는 최근 polyaniline의 분자량 효과와 가공성향상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LB film과 비선형 광학계 고분자 재료의 최근 이론발달과 실제응용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심포지움이 끝난 뒤 간단한 간담회를 갖음으로서 참석회원들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논의와 분자전자학 부문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끝으로 바쁘게운데 심포지움 발표자 선정 및 안내장 작성에 시간을 할애하신 김정엽, 김낙중박사와 인촌기념관 사용에 도움을 주신 진정일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분자전자학부문위원회 총무 임승순〉